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구매(購買)
- ④ 공격(攻撃):방어(防禦)

01 ① 비문학-어휘의 의미관계: 반의어

<보기>는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①의 '성공(成功)'과 '실패(失敗)'는 단어 쌍을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는 상보반의어(=모순반의어)에 해당한다.

[참고] 반의 관계

상보(모순) 반의어, 등급(정도) 반의어, 방향(대칭)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

•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을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난다.

예) 그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 정도를 나타내는 말의 수식이 불가능하고, 비교 표현으로 쓰일 수 없음.

예) 그는 매우 (남자/여자)이다.(×)

그는 하연이보다 더 (남자/여자)이다.(×)

2) 등급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

•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음.

예) 그것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이 가능함.

예) 그것은 {조금/매우} 길다. (○)

그것은 이것보다 더 길다.(○)

•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임.

3) 방향 반의어: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

• 공간적 관계의 대립(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인간관계의 대립(부모-자식, 남편-아내), 이동의 측면에서의 대립(가다-오다, 사다-팔다) 등으로 세분화됨.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02 ② 비문학-화법: 사회자의 역할

토론할 때 사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공평함과 공정함이다. 찬성과 반대쪽에 말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공정하게 토론을 이끌어 가야 한다. 토론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의 내용을 알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논점이 흐려지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 과정에서 질문과 요약은 간간히 삽입하면서 토론을 돕는다. 결론에 이르면 이것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토론된 범위와 문제점을 정리하여 토론을 끝낸다.

[오답 풀이]

- ① 토론을 시작하기 전 이미 토론의 논제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회자가 논제의 타당성을 논하지 않는다.
- ③ 사회자가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며, 토론의 주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다.
- ④ 사회자가 아닌 토론자의 역할이다.

[참고] 토론자의 유의점

토론자가 내세우는 주장은 충분히 생각한 것이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 증거는 신빙성이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연구 결과라든지 유명한 사람의 말, 언론 보도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를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활동이다.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대방 토론자를 비교거나 공격하는 말투를 쓰거나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말을 자르거나 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자칫 말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토론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옳은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성공적인 토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지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3 ① 비문학-글의 전개 방식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 전체 농토의 2/3,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 등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성,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근거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풀이한 내용은 없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 사태의 심각성 등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04 ④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한글맞춤법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례 하는 말을 이르는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이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인사말’과 같이 적는다.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데, 표준 발음이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 [예:사말]인 이 말은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 예사말’과 같이 적고, [노랜말], [존댓말], [훈잔말]인 이 말은 ‘노랫말, 존댓말, 훈잔말’과 같이 적는다.

[오답 풀이]

① 노랫말[노랜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노랫말’은 [노랜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② 순댓국[순대국/순뎡국]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순댓국’은 [순대국/순뎡국]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하꽃길(下校)-[하:교길/하:곶길]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하꽃길’은 [하교길/하곶길]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05 ② 문학-현대문학: 문학 이해의 관점

(가)는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 역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의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은 반영론적 관점에 비평이다.

[오답 풀이]

- ①의 전통적 민요의 율격, 정제된 시상, ③의 시적 분위기, 선경후정, ④의 이미지 등은 모두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재적 관점(절대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참고] 문학 이해의 관점

1) 내재적 관점(절대론적 관점)

작품의 운율, 문체, 표현상 특징, 구조 등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

2) 외재적 관점

작가, 독자, 현실 등의 작품 외적 요소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

① 표현론적(생산론적) 관점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창작 의도,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관점

② 반영론적(모방론적) 관점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 역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관점

③ 효용론적(수용론적) 관점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독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관점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
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
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
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
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
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
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
(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
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06 ① 비문학-내용 파악

마지막 단락의 내용에서 확인 할 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
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 그리고 ‘삼독(三讀)’ 중에서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설명을 통해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의 ‘반가운 벗과의 독서’, ③의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 ④의 ‘친밀
한 교우(交友) 관계’ 등은 지시 글의 내용과 관계없다.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07 ②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띄어쓰기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다. 따라서 ‘옛 책, 옛 추
억, 옛 친구, 옛 모습’ 등과 같이 띄어 쓴다. 그러나 ‘옛것, 옛글, 옛길, 옛
꿈, 옛날, 옛날이야기, 옛말, 옛사람, 옛사랑, 옛시조, 옛이야기, 옛적, 옛
정, 옛집, 옛터’ 등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옛날

이야기’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옛날 옛적’은 구의 구성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 풀이]

① 그 중에 → 그중에

여럿의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이나 무엇을 하는 동안을 뜻하는 ‘중
(中)’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그중’은 ‘그’와 ‘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그것들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라는 뜻을 새롭게 가지게 된 하나의 단어이다. 참고
로, ‘그중’과는 달리 ‘이 중’과 ‘저 중’은 ‘이’와, ‘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이것들 가운데, 저것들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이들을 한
단어로 보지 않고 ‘이 중, 저 중’과 같이 띄어 적는다.

또한 ‘회의 중’은 띄어 쓰고, ‘그중, 무망중, 무심중, 무언중, 무의식중,
밤중, 부재중, 부지불식중, 부지중, 야밤중, 은연중, 총망중, 한밤중, 허
공중’ 등은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③ 한 번 → 한번: 기회 있는 어떤 때에. 횟수(×)

‘한번’과 ‘한 번’은 문맥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한 번’이 1회를 나타내
는 경우에는 띄어 쓰고, ‘지난 어느 때나 기회’, ‘기회가 있는 어떤 때’,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 등을 나타낼 때는 ‘한번’으로 붙여 쓴다.

④ 굴 속으로 → 굴속으로

‘굴속, 마음속, 가슴속, 산속, 물속’ 등은 합성어로서 붙여 쓰고, ‘숲 속,
시냇물 속, 도랑물 속, 찬물 속, 우물 속, 강물 속, 냇물 속, 흙탕물 속’
등은 각각의 단어로 띄어 쓴다.

참고로 다음 단어들은 의미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 ㄱ 뱃속: ‘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ㄴ 배 속: 배의 안. ㉠ 배 속의 아기
- ㄷ 머릿속: 상상이나 생각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
- ㄹ 머리 속: 두개골의 안쪽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을일[가을릴] ㉡ 텃마당[툰마당]
㉢ 입학생[이팍쌩] ㉣ 흙먼지[흥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
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08 ③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 음운의 변동

㉢은 ‘입학생[이팍쌩(축약)]→이팍쌩(된소리되기:교체)]’으로 축약 현상이
나타나 음운의 개수가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오답 풀이]

① ㉠: 가을일[가을닐(ㄴ첨가)]→가을릴(유음화:교체)]로 두 개의 변동 현
상이 나타난다.

② ㉡: 텃마당[툰마당(음절의 끝소리규칙:교체)]→툰마당(비음화:교체)].
‘ㄴ’ 치조음(잇몸소리)이고, ‘ㅁ’은 양순음(두입술소리)이므로 조음위치가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6월 15일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다르다. 참고로, 유음화 현상은 조음위치가 같아진다.

④ ㉔: 음절 끝에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그러나 '흙먼지[흑먼지(자음군단순화:탈락)→흙먼지(비음화:교체)]'으로 자음군단순화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09 ①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비문의 유형

①은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으로 과거시제를 의미하므로 고칠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참고로, '접수될'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을)'은 미래 시제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과업 지시서 교부는~교부한다.

→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③ 수역을(목적어) 제외된(피동)

→ 수역을 제외한

④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주동

→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 사동

1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묻 뵈
고인(古人)를 묻 뵈도 녀던 길 알픽 잇늉

녀던 길 알픽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나) 술은 어이햐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햐야 도흐니, 염매(鹽梅)톨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흐리라

(다) 우레갯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갯치 번똥 만나

비갯치 오락가락 구름갯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북롬갯튼 한숨이 안기피듯 흐여라.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웃음이 정 웃음가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늉 웃디를 말구려 아귀 뵙여디리라.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③ (다):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10 ② 문학-고전문학: 고시조의 표현상 특징

(나)의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법이 나타나 있다 문답법과 대조법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 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④ 화자는 자신의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냉소적 표현이다. 세상에 어이 없는 일이 하도 많아서 입이 찢어질 것이다. 종장의 '아귀 뵙여디리라'는 '입이 찢어지리라'라는 말로 이전 사대부의 시조와는 다소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다.

(가)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 9수

• 표현: 대구법, 연쇄법

• 주제: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고자 함

• 현대어 풀이

옛 성현도 나를 보질 못했고 나도 옛 성현을 뵈지 못했네

고인을 뵈지 못했어도 그 분들이 행하던 길이 내 앞에 있네

그 가던 길(진리의 길)이 앞에 있으니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나) 윤선도, '파연곡(罷宴曲)'

• 표현: 대구법

• 주제: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 창작 동기: 연회석에서 임금을 간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

(다) 작자 미상의 시조

• 주제: 이별의 슬픔

• 현대어 풀이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임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라) 권섭의 연시조(전10수), 풍자시

• 성격: 냉소적, 교훈적, 현실비판적, 풍자적

• 표현: 문답법, 설의법, 돈호법, 의성법

• 주제: 진실한 삶의 자세

• 특징: 의성어를 적절히 활용했고, 설의법과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이 두드러짐

• 현대어 풀이

하하 허허 하고 웃는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세상일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렇게 웃는 것이네

벗님네들이여, 내가 웃는다고 같이 웃지를 말구려. 웃다가 아귀가 찢어질지도 모르니까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④ ㉣: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11 ③ 비문학-어휘의 의미관계: 다의어

③ ㉢의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는 의미로 쓰였다.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짓는다.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12 ① 비문학-화법: 말하기

진행자는 홍 교수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았다. 홍 교수의 의견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홍 교수가 제시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대하여 진행자는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③ 진행자는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④ 진행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13 비문학-글의 제목

글쓴이는 진보와 진화에 관한 계몽주의 사상가들, 헤겔, 다윈 등의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兢兢(耿耿)하여 컷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랴?”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삼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 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14 ③ 문학-고전문학: 고전소설의 내용 파악

사씨는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라는 대답으로,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고 가르쳤을 뿐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다.
- ② 사씨가 본래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유 소사는 사씨를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던 조대가에 비겨 흠족함을 표현하였다.

※출전: 김만중, <사씨남정기>

1.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 씨와 악인인 교 씨를 등장시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정실부인인 사 씨를 덕이 있고 고매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첩인 교 씨를 간사하고 영악한 인물로 그려 냄으로써 첩실을 허용하는 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여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무능한 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조선 후기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다.

2. 핵심정리

- 1)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 2) 성격: 풍간적(諷諷的), 가정적
- 3)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4) 배경: 중국 명나라 초기, 중국 북경 금릉 순천부
- 5) 주제

-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권선징악(勸善懲惡)
- 사 씨의 덕행에 대한 칭송과 악행을 저지른 교 씨에 대한 징벌

6) 특징

- 속종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 소설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 각 인물들이 상징성을 지님.
- 속종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 소설.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중국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당대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음

7) 연대: 조선 숙종 15~18년

3. 전체 줄거리:

유연수는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장원 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 씨와 결혼하나 늦도록 후사가 없어 교 씨를 첩으로 맞아 들인다. 교 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 씨를 참소한다. 결국 유한림은 사 씨를 폐출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교 씨는 문객 동청 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이후 유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리자, 조정에서는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유한림은 사방으로 사 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 씨와 해후한다. 유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채로 조용하고 쓸렁했다.

꽝 당 꽝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불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밑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벌겋게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꽝 당 꽝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쑺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꽝 당 꽝 당.

그 쇠불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바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15 ④ 문학-현대문학: 현대소설의 감상

초여름 밤, 조용한 분위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쑺시는 구석이 있는~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한다. 따라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정신적인 무기력을 반복되는 망치 소음과 병치시켜 표현한 전후 소설로, 쇠불이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음은 작품의 마지막까지 들려온다.

※출전: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1. 해제: 이 작품은 한 가정을 무대로, 20년이나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는 초조한 상황을 소설화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5월의 어느 날 저녁에서 열두 시까지의 현재의 상황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삽입된 구조이며, 공간적 배경은 현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폐쇄되어 가는 어느 가정이다. 작자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이 소설은 속편 격인

“무너 앉는 소리”와 함께 안톤 체호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광당 광당 하는 쇠불이 소리를 배경음으로 하여 분단의 비극이 한 가정에 가져다 준 정신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등장 인물들 간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역시 한결같이 단절된 마음의 벽을 느끼게 해 준다. 특히,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 단편 소설. 전후 소설
- 2) 배경 : 5월의 어느 날 저녁의 한 실랑인 가정
- 3)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4) 구성 : 어느 하루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한정된 시간으로 짜여져 있음
- 5) 표현 :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를 지님
- 6) 의의 : 실랑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됨을 그려 냄
- 7) 주제 : 전후(戰後)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가족의 권태와 비극

3. 줄거리
5월의 어느 날 저녁, 밤 열두 시에 돌아온다는 딸을 언제나처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조용하고 쓸렁한 집안에는 은행에서 은퇴한 늙은 주인, 며느리 정애, 그리고 막내딸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다.

어디서 광당광당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정애는 이 집 딸의 시사촌 동생인 선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상기시킨다. 선재는 죽은 영희 어머니가 몹시 아낀 청년이다. 마침 이층에서 내려온 성식은 왜들 그러고 앉아 있느냐고 가시 돋친 말을 한다. 바깥 야윈, 파자마 차림의 오빠를 영희가 비꼰다.

술에 만취된 선재가 들어오자 영희가 그를 부축하고 올라가고 성식도 이층으로 올라간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정애는 까닭 없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조금해지는 것을 느낀다. 영희는 선재가 쓰는 초라한 방에서 선재의 품에 안기어 쇠망치 소리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무섭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빠의 방을 찾아가서 지금 막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나 성식이 물끄러미 천장만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영희는 쓰디쓴 웃음을 보인다.

점점 열두 시는 가까워지고 늙은 주인은 푸념을 하는 어린애처럼 코의 사마귀를 만지면서 두리번거린다. 그 순간, 시계가 열두 시를 치고, 모두의 시선이 시계와 노인의 얼굴로 향하는데, 복도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기묘한 웃음을 띤 식모가 나타나 변소에 갔었다고 말한다. 영희는 식모를 가리키면서 언니가 정말 왔다고 소리친다. 아버지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면서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린다.

광당광당 하는 쇠불이 두드리는 소리는 온밤 내내 이어진다.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에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6 ② 비문학-내용 파악

영화 <일 포스티노>에는 시의 본질과 은유가 잘 드러나 있을 뿐, 영화 속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③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하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 ④ 영화 <일 포스티노>에는 '문학이 따리를 들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絶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17 한문-한자와 한자어: 한자성어

김삿갓의 시는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는 표현에서, ③의 '천의무봉(天衣無縫)'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천의무봉(天衣無縫)'은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우면서 완전하다. 주로 시가(詩歌)나 문장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① 화조월석(花朝月夕) : 花 꽃 화/朝 아침 조/月 달 월/夕 저녁 석) ①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라는 뜻으로,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음력 2월 보름과 8월 보름. [유] 조화월석(朝花月夕)
- ② 위편삼절(韋編三絶) : 韋 가죽 위/編 엮을 편/三 세 삼/絶 끊을 절) 종이 없던 옛날에는 대나무에 글자를 써서 책으로 만들어 사용했었는데, 공자(孔子)가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엮어 놓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단 데에서 비롯된 말로, 한 권의 책을 몇 십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 ③ 천의무봉(天衣無縫) : 天 하늘 천/衣 옷 의/無 없을 무/縫 꿰맬 봉)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하다. 주로 시가(詩歌)나 문장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격이나 언동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어린이와 같이 순진하다.
- ④ 막무가내(莫無可奈) : 莫 없을 막/無 없을 무/可 옳을 가/奈 어찌 내)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18 한문-한자와 한자어: 한자어

① 유명세(有名勢)→유명세(有名稅)

①의 '유명세(有名稅)'는 사회적으로 유명(有名)하다는 뜻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치려야만 하는 돈을 일컫는 말로서, '세(勢 형세 세)'가 아니라 '세(稅 세금 세)'를 쓴다.

- ① 유명세(有名稅) : 有 있을 유/名 이름 명/稅 세금 세) 사회적으로 유명(有名)하다는 뜻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치려야만 하는 돈을 일컫는 말로서,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뜻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 ② 복불복(福不福) : 福 복 복/不 아닐 불/福 복 복)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복걸복(X) 복걸복(X)
- ③ 대증요법(對症療法) : 對 대할 대/症 증세 증/療 요/法 법 법)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대중요법(對中療法)'은 바르지 않은 표기이다.
- ④ 경위(涇渭) : 涇 통할 경/渭 물 이름 위)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중국의 징수이강(涇水江)의 강물은 흐리고 웨이수이강(渭水江)의 강물은 맑아 뚜렷이 구별된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나 건륭제 때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징수이강이 맑고 웨이수이강이 흐렸다고 한다.

[참고] 경위(涇渭)와境遇(境遇)

'경위(涇渭)'와 '境遇(境遇)'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경위(涇渭) : 涇 통할 경/渭 물 이름 위)'는 사리(사물의 이치)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을 이르는 말로, '분별'의 뜻이 중심이 되는 말이고, '境遇(境遇) : 境 지경 경/遇 만날 우)'는 '사리(사물의 이치)나 도리(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연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 ④ 비문학-내용 파악

제시 글은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된다고 하였으므로 ‘과학 기술의 부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단락에서,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음(하지 않음, 포함)을 알 수 있다.
- ② 둘째 단락의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오늘날 위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는 설명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③ 둘째 단락의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설명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20 ③ 비문학-글쓴이의 입장

셋째 단락에서,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에서, 효(孝)가 일차적인 인간관계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한다는 설명에서 이는 글쓴이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② 효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라는 설명은 없다.
- ④ 셋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라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 되지 않았다.